

선뜻 들어서기 어려운 전시장 앞에 서서

《나탈리 뒤 파스키에 개인전: 사물들의 불규칙한 정렬》(페이스 갤러리, 2019.3.8.-2019.5.25.)
리뷰

김소정

공간이 주는 부담감과 중압감에 압도되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치과에 들어설 때 지난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마음과 은행을 향할 때 나의 보잘것없는 잔고가 떠오르며 그 공간에 들어서는 것마저 꺼려지는 그런 경험 말이다. 비단 삶의 무거움에서만 공간의 부담감을 느끼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먼지 하나 없는 호텔 로비에 그런지 록 그 어디 비슷하게 입고 수트케이스 하나 없이 들어설 때 그럴 것이고, 새로운 만남의 자리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무리 봐도 상하의가 어울리지 않는 나의 모습을 거울에 비출 때, 그 이질감에서도 공간의 부담감을 느낀다.

페이스 갤러리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서 나열한 그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다. 한남동-누가 여기에 매장을 낼 수 있을까 싶은 그 메인 로드-의 자동차 전시장 위, 5층으로 올라가면 페이스 갤러리가 있다. 2017년 한국에 진출하고, 그 흔한 오프닝 파티도 하지 않은 갤러리. 이름이 주는 묘한 중압감에 선뜻 가보지 못한 갤러리. 나탈리 뒤 파스키에의 작품이 전시 중인 5월 중순의 어느 토요일, 멋진 집에 가구를 구경하러 들어가는 구경꾼의 마음으로 전시장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면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이 반긴다. 잘 짜인 나무 바닥과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천장은 그들이 작품에만 시선이 가도록 공간에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갤러리라면 응당 갖춰야 할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의자의 탑재(의자의 등판) 또한 캔버스 회화가 자리하고 있다. 의자가 시작을 맞이하는 전시장 구성은 언뜻 연극의 마지막 장면 같기도 하다. 약간은 울렁거리는 캔버스에 들어선 직각과 수평의 구조물, 벽에 그려진 마냥 착 달라붙은 두께감 없는 회화, 캔버스 안의 구조가 3D로 구현된 세라믹 작품 그리고 그 중간마다 우두커니 자리한 의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고동색 좌대 위에 나열되어 있어 연극의 무대 같기도, 혹은 기념품이 잘 정리된 찬장 같기도 하다.

“The strange order of things”라는 전시 제목과 어울리는 배치를 한 작품들은 기념품장보다는 넓게, 그러나 여느 전시보다는 좁게 자리한다. 작품 하나하나가 완성도 있는 그래픽디자인같이 그 자체로 인쇄물이나 포스터가 되어도 손색없으리라 느껴졌다. 이상한 순서의 물건들은 장에 열을 지어서 나름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장 뒤에 새로운 전시공간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이 아쉬움을 남기기도 한다. 나열된 작품들은 그 어느 것도 다른

작품을 가려 시야를 방해하지 않으나 동시에 충분한 공간을 주지는 않는다. 만원 버스보다야 낫지만 여전히 막혀 있는 서울 시내 도로같이, 서로를 침범하지는 않으나 여유 공간은 부족하다. 그리하여 열을 지은 작품들을 뒤로하면 어느 한 공간은 충분한 여백을 뒤로하고 전시되어 있으리라는 기대도 든다. 그러나 작품들에 비해 넉넉지 않은 공간 때문에 탁 트인 시야에 전시되었으면 어떨지 아쉽기도 하다.

아쉬우나 여전히 잘 나열된 작업을 보며 한 바퀴를 돌면, 부담스러웠던 마음이 잠시 진정되며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느낌과 함께 안쪽 오피스에 슬쩍 눈을 흘겨본다. 오피스 중앙에 걸린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업실을 담은 회화와 사진이 결합된 작품과 마주친다. 다시금 ‘아, 여기는 페이스갤러리였지.’ 생각하며, 진품의 여부는 궁금하지도 않아진다. 약간은 싱겁게 그리고 예상보다 빠르게 전시장을 둘러보고 나면, 무심코 지나쳤던 창문들이 눈에 뜨인다. 한남대교로 향하는 육교를 높여서 내려다보는 창문은 한남동이 훤히 다 보이는 동시에 시야에 걸리는 풍경 하나 없었다. 흰 벽에 가려졌으면 아쉬웠을 창이었다.

갤러리에서 제공하는 유인물은 작가를 서술하는 글과 전시된 작가의 작품 전체가 사진과 함께 정리된 세 장의 리플릿이었다. 다시금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나열된 캡션 옆 작품가는 갤러리 초입에 비치된 파일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파일을 펼치며 작품을 하나씩 훑어 내려가면 어쩐지 구입할 수 있을 거 같은 가격대의 작업을 찾게 된다. 조용히 파일을 덮고, 고개를 돌려 그 작품에 다가가 목을 내밀고 작품을 천천히 보고 다시 갤러리 초입으로 돌아온다. 별생각 없는 행동을 돌아보며, 구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구경꾼으로 입장한 사람에게 마저 다시 작품을 관찰하도록 만든 동선에 수긍하며, 새삼 스스로가 이렇게나 위화감에 휘둘리는 사람이었나 반성하며 갤러리를 나선다.